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문학의 방향성*

김 종 회**

차 례

- | | |
|-------------------------------------|---------------------------|
| I. 서론 | IV.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시의 전개 양상 |
| II. 『주체문학론』의 의미 고찰 | V. 결론 |
| III.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단편소설의
주제론적 특성 | |

I. 서론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분단의 상처와 흔적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 또한 분단 현실에서 파생된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난관들이, 세계 정세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한반도 문제 해결의 현실적 걸림돌로 실재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 통합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우리에게 20세기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닫고, 21세기 한민족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준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다.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전지구적 질서는 이미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이 민주

* 이 연구는 2003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31021)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적으로 혼재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재편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그늘에 묶여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현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남북의 폐쇄적 혹은 단발적 상호 교류는 한반도 문제의 점진적 해결을 더디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공존의 열린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북한 문예이론의 지침서인 『주체문학론』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담론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균열의 징후를 포착하고자 한다. 그러한 균열의 징후가 조국통일, 청춘 남녀의 애정, 과학환상, 이농 문제 등을 다룬 1990년대 이후 북한 단편소설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유훈통치 시대를 포함하여 김정일 시대를 형상화한 시들을 선군정치시대의 시와 반제반미사상의 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주체문학론』 이후의 북한문학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주체문학론』의 의미 고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 협력과 이산 가족의 상봉 등 정부·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듯이 보인다. 일부 학계에서는 분단 시대가 가고 통일 시대가 오고 있다는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¹⁾ 그러나 문학의 경우 1992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문예이론 지침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²⁾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독법은 담론적 차원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담론의 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미세한 균열의 징후를 포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해방 이후 북한의 문예학은 1967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1967

1) 강만길·김경원·홍윤기·백낙청, 「좌담, 통일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창작과 비평』, 2000. 가을.

2)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년 이전까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물론적 문예이론을 당의 공식적인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7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이전의 문예이론을 주체적으로 계승한 ‘주체문예이론’을 당의 공식 문예이론으로 삼는다.³⁾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문학은 주체문예이론이라는 공식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문학에 대한 접근은 주체문예이론 자체를 비판·거부하기보다는 주체문예이론 내부의 미세한 균열의 징후를 감지하는 작업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1980년대 북한 문학에 주목하였다. 주체문예이론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소 유연한 시각을 견지한 작품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80년대 현실 주제의 북한 소설은 일상 생활의 ‘숨은 영웅’을 형상화한다든지 애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북한 사회의 관료주의적 속성을 비판하였다. 이는 주체문예이론의 경직성을 내부적으로 반성하는 징표로 해석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뒤이은 북한 사회의 가뭄과 기근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 국제적인 고립과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문학은 다시 보수적인 경향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1990년대 북한 문학은 1980년대 문학의 유연성을 확장·발전시키지 못하고 과거의 주체문예이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미 사회주의적 현실 문제를 나름대로 깊이 있게 형상화한 체험을 간직한 북한의 작가들이 주체문예이론의 당위적 명제 앞에 굴복하여 순순히 과거의 작품 경향으로 회귀하지는 않는 듯하다.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은 1980년대 문학의 유연성과 1990년대 문학의 경직성 사이의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한다. 『주체문학론』의 첫 장이 ‘시대와 문예관’

3) 김정일,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1967. 5. 30) /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1967. 7. 3) /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할데 대하여>(1967. 8. 16) 등 참조.

4) 김재용은 1980년대 현실 주제의 북한 소설은 ‘북한 당대 현실내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소설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북한 사람들의 진지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재용, 『1980년대 북한 소설 문학의 특징과 문제점』,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271쪽 참조).

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새 시대는 주체의 문예관을 요구한다’로 요약되는 이 장은 새롭게 조성된 정세에 대한 북한식의 대응방안을 잘 보여준다. 이는 19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절박한 과제를 스스로 반영하는 것이다. 위기의 시대를 대응하는 북한식의 처방전은 과거의 주체문예이론으로 채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주체문예이론 내부의 미세한 균열(새롭게 조성된 시대 상황과 주체문예이론 사이의 불균형)을 포착하는 데에 있다. 변화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교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왔지만 이러한 균열은 북한 문학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주체적문예활동방법’이란 “문학예술 창작과 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주체성의 강조는 새롭게 조성된 정세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세계적으로 고립된 스스로의 정치 체제를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⁵⁾을 발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도 그 자체의 당위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다. 김정일은 “문학에서 어떤 인물을 전형으로 내세우려면 일반화의 요구와 함께 개성화의 요구”도 실현하여야 하며, “문학에서 사상성이 없으면 예술성이 없고 예술성이 없으면 사상성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일반화의 요구나 사상성이 개성화의 요구나 예술성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요소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개성과 예술성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둘의 조화를 요구하는 방법이 이어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 문학의 묘사대상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뿐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이 다 포괄되며 한 작품안에서도 생활분야가 국한되거나 한정되어있지 않고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문학은 복잡한 인간 생활을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묘사하여야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 줄수 있다.⁶⁾

② 우리 시대 인간의 높은 혁명성과 뜨거운 인간성을 심오하게 그려내어

5)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89. 12. 28), 조선로동당 중앙위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6) 김정일, 앞의 책, 19쪽.

사람의 문화정서교양에 도움을 주자면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술어나 구호 같은것을 라털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⁷⁾

위의 인용문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과 구체적인 현실의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혁명성’과 ‘인간성’ 혹은 정치적인 구호와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주된다. 예를 들어, “언어와 구성, 양상과 형태와 같은 일련의 형상수단과 형상수법을 다 동원하여야 내용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든가 “사람의 구체적인 성격과 생활에 파고들어야 하며 그 과정에 정치적 내용이 스스로 우러나오게 작품을 써야 한다” 등의 주장은 앞으로의 북한 문학이 이념 중심에서 생활 중심적인 문학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징후를 보여준다. 철학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통일을 보장하는 데에서 형상보다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형상에 대한 결론을 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제1장 시대와 문예관’은 새롭게 조성된 시대에 대응하는 북한의 수세적 방어 전략을 보여준다. 위기의 시대를 과거의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로 극복하려는 의도는 다소 무리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기존 문예이론의 경직성을 다소 탈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실과 당위의 불균형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제6장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6장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에서 김정일은 시, 소설, 아동문학, 극문학 등의 형식과 창작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시문학에서는 당의 정책적 요구와 서정성을 조화시키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

①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의 서정은 시인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장이다.⁸⁾

7) 김정일, 위의 책, 20쪽.

②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⁹⁾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와 당의 정책적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인간생활을 떠나 순수 자연을 찬미하는 시와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거기에 비친 인간세계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작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할 때 북한의 시문학은 이념과 서정 사이의 간극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소설 속에 형상화된 생활은 “시대와 사회의 본질이 반영된 전형적인 생활이며 작가의 발견이 깃든 새롭고 특색있는 생활”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식은 “문학과 독자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이므로 작가는 “온갖 도식에서 벗어나 저마다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야 한다”¹⁰⁾고 함으로써 도식에서 벗어난 형상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주체문예이론 자체의 도식성이 아니라 소설 창작 기법과 관련된 도식성이다. 이어 그는 ‘다주인공을 설정하는 수법’, ‘주인공을 감추어놓고 형상하는 수법’, ‘부정적 인물을 중심에 놓고 형상’하는 수법, ‘인물의 심리를 기본으로 펼쳐나가면서 생활을 묘사하는 수법’, ‘량만주의 수법’ 그리고 ‘벽소설 같은 짧은 형식, 서한체, 일기체, 추리소설, 탐정소설, 실화소설, 환상소설, 의인화의 수법으로 엮어진 소설, 운문소설, 지능소설 등 다양한 기법과 형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과 형식의 도식 배제가 곧바로 주체소설의 도식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기법과 형식의 실현이 주체소설의 내부에 조그마한 균열의 징후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러한 징후에 대한 탐색과 발견이 소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체문학론』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아동문학이다. 아동들은 새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동문학에 대한 논의에서도 여지없이 내용과 기법 사이의 균열이 감지된다. 작가가 “아동문학을 우리 당의 정책

8) 김정일, 위의 책, 228쪽.

9) 김정일, 위의 책, 229쪽.

10) 김정일, 앞의 책, 244쪽.

과 우리 나라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우리 식 문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¹¹⁾고 강조함으로써 계몽적 담론과 민족적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관점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적 명제에 이어 김정일이 구체적인 기법 차원에서 아동문학의 형상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아동문학은 작품에 재미가 있어야 하며, 사상을 논리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말고 흥미있는 형상속에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야 하고, 변화무쌍한 행동성과 강한 운동감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될수록 쉬운 말과 표현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아동문학에서는 의인화된 수법과 환상, 과장, 상징을 비롯한 이미 있는 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하는 한편 새로운 형상 수법과 기교를 대담하게 창조하여야 한다”¹²⁾는 인식은 기법적 새로움을 통해 이론적 당위와 형상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몸짓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와 형상 사이의 괴리는 ‘주체문예이론’의 미래를 보여주는 징후로 기능할 수 있다.

김정일은 극문학, ‘텔레비죤문학’, 평론문학 등 다양한 형태의 문학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은 그동안의 문학작품들이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미감’을 도외시하거나 간과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력사적으로 이루어진 기성형태나 새로 창조하는 형태나 할것없이 모든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살려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고 다채롭게 장식하여야 한다”¹³⁾는 김정일의 강변은 오히려 기존의 ‘주체문학의 화원’이 왜소한 일면만을 지녀왔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주체문예이론’ 내부의 미세한 균열에 초점을 맞추어 일별해 보았다. 『주체문학론』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걸쳐 확립되어 1980년대 다소 유연하게 전개된 주체문예이론의 1990년대 판 중간결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북한 문학은 전일화된 유일사상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에 『주체문학론』은 북한

11) 김정일, 위의 책, 254쪽.

12) 김정일, 위의 책, 256쪽.

13) 김정일, 앞의 책, 267쪽.

문학 내부의 ‘변화하고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의 미세한 긴장을 보여 준다. 이는 당위와 욕망, 혁명과 일상, 이념과 기교, 내용과 형식 등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과 이후 전개된 북한 체제의 경직된 모습은 대내외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 체제를 옹위하는 ‘선군정치’를 앞세우게 된다. 문학 또한 2000년대에 이르러 “고난의 행군 시대에 태어난 새로운 문학”, “개화, 발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인 ‘선군혁명문학’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시대의 ‘혁명문학’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양상 속에서 ‘현실’과 ‘절대정신’ 사이의 줄타기로 요약할 수 있는 『주체문학론』은 ‘주체문예이론’의 자의식, 더 나아가 북한 체제의 자의식을 유추할 수 있는 각주의 역할을 한다. 자의식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주체문예이론’의 자의식은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아픔, 즉 타자(개방)를 통한 스스로의 위상 정립과 맞물려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 속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의식의 징후는 『주체문학론』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기질’·‘개성’(기법/형식)에 대한 강조는 ‘주체문예이론’의 이념성(내용)에 미세한 균열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은 북한 문학 내부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문학을 준비하는 남한 문학의 실질적 과제이기도 하다.

Ⅲ.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단편소설의 주제론적 특성

1. 조국통일 주제 소설의 특성

1980년대 후반 이후 남한 사람의 방북 등 새로운 차원의 통일 방법의 가능성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 검토 수용되면서, 분단과 통일 문제를 일종의 탈이데올로기적인¹⁴⁾ 차원내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경향의 북한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한

14) 김재용은 이러한 측면을 ‘심정적이고 인도적’이라고 규정한다. 김재용, 앞의 책, 310쪽.

다. 특히 1992년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통일운동의 새로운 경향을 언급하게 된다. 즉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으며,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가운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의 민족분열책동으로 말미암아 수십년동안 서로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였던 아들딸을 만난 부모도 있고 안해를 만난 남편도 있”고, “그들의 눈물겨운 상봉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참으로 극적인 것”이라며 상봉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화할 것을 강조한다.¹⁵⁾

1996년 『조선문학』에 발표된 주유훈의 『어머니 오시다』는 헤어진 아들과의 만남을 일생의 꿈으로 가진 황설규의 어머니와, 북한의 저명한 음악가로서 잃어버린 가족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을 가진 아들 황설규의 극적인 상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조국통일의 필요성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이 이데올로기로부터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설정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즉 황설규가 남한을 떠나 북한에 거주하게 된 동기를 북한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해방 이전 금강산 수학여행이라는 우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설정된 것이다. 또한 이산 이전의 행복한 가족의 삶과 이후의 고통스러운 삶을 동시에 회상하게 하는 바이올린과 활조이개는 황설규 일가 가족사의 탁월한 상징으로서 이데올로기 너머에 자리잡고 있다. 분리되었던 바이올린과 활조이개를 결합해 황설규가 주체할 수 없는 떨림 속에 연주하는 곡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노래라 할 동요이다.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가 상징하는 의미는 헤어짐 이전의 행복했던 가족의 삶 그 자체이며, 상봉을 통해 누리게 된 인간적 슬픔과 기쁨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은 새로운 조국 통일 주제 소설에 대해 북한 사회의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의 경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확인하게 해 준다. 상봉의 기쁨이라든가 이산 가족의 인간적 슬픔과 고통 그 자체는 지엽적이라는 것, 미제의 식민지인 남한과의 분단이라는 전체적인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이 작품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90년대 이후 나온 새로운 경향의 조국 통일 주제 소설이 당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적절한 조율에 이르는가를 보여주는 범례적인 작품이다.

15) 김정일, 위의 책, 261쪽.

2000년 『조선문학』에 발표된 김교섭의 「누이의 목소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자기 희생을 매개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월북의 동기가 감작스런 풍랑으로 인한 표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설정된다. 또한 김우범의 과거사 서술에 이른바 미제와 괴뢰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남한 인민의 전형적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분단으로 인해 누이와 만나지 못하는 인간적 슬픔이 주로 서술될 뿐이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김우범을 위해 자신의 다리뼈를 제공하는 김숙희의 자기 희생에 내재해 있는 이데올로기는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뛰어넘는 심리적 동인에 있다. 즉 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모국인 북한 땅에서 김우범이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태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핵심인 자존심과 긍지에 상처를 주는 사건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 검열을 통해 김숙희가 자신의 다리뼈를 제공하기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죽었지만 살아 있는 ‘수령’의 명령과 법(‘유훈’)에 따라 김숙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김숙희의 이러한 자기 희생은 『주체문학론』에서 ‘우리 문학에서 영원한 형상의 원천’이라고 규정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구현행위라 할 수 있다.¹⁶⁾

통일과 수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김숙희는 전통적인 조국 통일 주제 소설에 나타난 인물형의 한 반복이며, ‘오직 우리식대로 창작하자’에서 제기된 경구를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최근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 주제 소설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는 전통적인 작품이다.

2. 청춘 남녀의 애정 관계를 다룬 소설의 특성

북한에서 청춘 남녀의 사랑은 동지애적 관계와 올곧은 신념에의 확인이 감정 교류에 우선한다. 북한 사회가 항일무장투쟁 이래로 고난과 시련에 맞서 조국과 민족을 보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념으로 굳게 뭉쳐진 구호식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 사회의 현실 반영태로서의 소설에서 자유주의적 감성이나 본능에 충실한 남녀 관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16) 김정일, 앞의 책, 118~119쪽.

북한 소설에서 대부분의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이 그 성패를 가늠한다. 그러므로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동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북한식 사랑법의 핵심 요소가 된다. 감정에의 충실성이나 본능적 이끌림은 부차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의 삼각형(지라르) 역시 배제된다. 오로지 맞대면한 상대방에 의해 자리가 배치되며 그 상대에 의해 사랑이 의미화되기 마련인 것이다.

맹경심의 『첫 개발자들의 이야기』(『청년문학』, 2002. 9)는 병으로 앓아 누운 탄광 신문주필(액자 속 '나')로부터 탄광의 연혁을 서술하는 사업을 인계 받게 된 액자 바깥의 '나'가, 그의 구술을 받아 탄광 초창기 무렵 탄광노동자로서 첫 노력영웅이 된 <주먹>(김주형)과 제대군인 여병사의 '값진 사랑'에 대한 회고담을 기록한 액자형 소설이다. 대부분의 북한 단편소설이 그렇듯 인민을 교양하려는 계몽주의적 의도가 작품 면면에 묻어나는 이 작품은 청년 남녀의 사랑이라는 외피를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전 세대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계승적 주제의식을 앞세운 작품이다. <주먹>이라는 탄광노동자와 제대군인 여병사가 탄광을 개척하며 보여준 숭고한 사랑을 형상화한 『첫 개발자들의 이야기』는 신념과 성실성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양심적·공정적 인물을 통해 헌신적 탄광노동과 동지적 연애라는 양날개 속에서도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즉 외골수적 성실성의 남성과 당찬 여성의 맺어짐이라는 이상적 남녀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윤경찬의 『겨울의 시내물』(『조선문학』, 2002. 10)은 이제 70의 고령이 된 리학성이, '한국전쟁'에서의 부상으로 팔을 절단하고 폐 절제수술을 받은 부상자였던 자신과 담당간호원 옥심이의 사랑을 회감하며, 생활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다지고, 조국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형식으로 그려진 애정소설이다. 작품 말미에서 학성이 피력하는 '생활에 대한 사랑과 의지'와 '조국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두 구절은 이학성의 70 평생을 압축하는 말이 된다. 특히 비겁쟁이에서 괴짜로, 다시 김책공대 교수로 인생을 달리해온 70고령의 이학성은 불구적 시련을 극복한 숨은 영웅의 전형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작품은 의지적으로 유약한 신체적 불구의 남성과 헌신적이고 강인한 당찬 여성의 맺어짐을 통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온 개인의 과거사를

낭만적으로 조감하는 연정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홍남수의 『시작점에서』(『청년문학』, 2003. 1)는 ‘불량청년’이었던 철진이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으며 각성된 노동자로 거듭나는 내용을 <길>, <생활의 흐름>, <래일은 더 아름답다> 등의 소제목으로 구성된 1인칭 고백체 소설이다. 북한 소설에서는 보기 드물게 철진은 ‘순수 소비자’이자 ‘사회의 근심거리’였으며, 주위로부터 ‘쓰지 못할 인간, 불량청년’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상한다. 북한 사회가 노동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의식의 각성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으로 철진이 거듭나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두 젊은이가 2년 동안 ‘순수 소비자’로서 ‘자유주의’적 행태를 일삼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북한 소설에서의 일탈적 변화의 조짐을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은 북한 소설이 일반적으로 ‘고난과 시련, 미성숙→의식의 각성, 모범→어머니당을 향한 충성’의 도정을 거치며 결국 도식적·긍정적·화해적 결말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은 좌충우돌하다가 의식의 각성을 보이는 남성과 가너린 심성의 소유자로서 비주체적·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과의 맺어짐을 통해 청년의 의식적 각성이라는 주제를 그려낸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소설에서 드러나는 이성간의 교제는 철저히 일대일의 관계로 형상화된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감정 교류가 일대일의 쌍방향 관계에서만 비롯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북한 소설 속 연애 관계는 현실을 외면하는 편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윤리적·사회적·도덕적 규범과 관습에 얽매인 남녀 관계는 사회적 신념의 충실성에 기반한 동지적 애정만을 유일무이한 답안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북한 소설 속 여성상을 종합해보면, 집단의 목표와 성취 동기가 뚜렷한 과제를 앞에 둔 여성은 당차고 강인하게 불굴의 신념과 개척 정신을 소유한 주체적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남성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여리고 부드러우며 가너린 여성으로서 남성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강한 부드러움’이라는 모성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양분화한 모습으로 여성들이 형상화된다는 것은 여성의 다기다양한 현실적 모습을 왜곡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낸다.

3. 과학환상소설의 특성

북한문학에서 과학기술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의 주인공은 대체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을 지닌 소유자들로서 긍정적인 사고관을 보여준다.¹⁷⁾ 이들은 대의명분을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물형들로서 대중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표방한다. 인민 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과학 기술의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적의식 아래 그동안 많은 과학소재소설이 창작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미래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한 과학환상소설은 새롭고 참신한 문예장르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김정일은 자신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문예 장르로서 과학환상소설을 예시하면서 미래의 인재 육성이라는 방침 아래 과학소설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¹⁸⁾ 기존의 주체문학이 지닌 도식성을 극복하고 인민 대중과 연계하는 새로운 주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과학환상소설이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북한문학에서 과학환상소설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는 황정상은 『과학환상문학창작』¹⁹⁾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윤리적 결단을 중심에 둔 과학환상소설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올바른 인간, 고귀하고 숭고한 과학자의 품성을 창작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북한문학이 지향하는 ‘주체의 인간학’이 과학환상소설이라는 장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힌다.

리금철의 「붉은 섬광」(『조선문학』, 2002. 9)은 미제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정치적 시각을 깔고 있는 과학환상소설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남태평양 아열대수역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아씨르의 수도에서 한밤중에 발생한 항구화재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소설에서 스토리의 흥미로움은 헬렌이 주어진 정황을 가지고 화재 사건의 진상을 밝혀가는 추리 기법을 사용하면서 나온다. 처음에 아씨르 섬의 화재 사건은 섬에 주둔한 미해병대의 전략물자인 연유통을

17) 김종희, 「해방 후 북한문학의 전개와 실증적 연구 방향」,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36~39쪽.

18) 김정일, 앞의 책, 247쪽.

19)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공격하려는 사람들의 음모처럼 보인다. 김학성을 비롯한 조선의 과학자들은 미군의 연유통 폭발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듯한 용의자로 등장하지만 이는 헬렌의 치밀한 증거 해석으로 인해 곧 실마리를 드러내게 된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숨어 있으려는 김학성의 품성은 헬렌의 추리과정을 통해 차례로 밝혀지면서 더욱 고귀한 인성으로 돋보이는 효과를 갖는다. 더불어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미래적 상상력은 북한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선진적으로 발달할 것인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연결된다. 눈부신 과학기술을 선한 의도에서 사용할 줄 아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북한의 과학환상소설에서 중요한 내용인 것이다.

리금철의 『붉은 섬광』이 북한 과학환상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리철만의 『박사의 희망』(『청년문학』, 2002. 8)은 사이보그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다소 음울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좀더 환상성을 강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박사의 희망』이 보여주는 미래의 문명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물질적 욕망이 인간의 존재근거까지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 작품에서도 갈등의 구조와 그 해소과정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악의 세계는 존 슈믹쯔 박사로 대변되는 황금만능주의의 세계이며, 선의 세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김대혁이 표상하는 세계이다. 슈믹쯔가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한 특성을 상징한다면 김대혁은 기술과 이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실행하는 이상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상징한다.

『붉은 섬광』과 함께 『박사의 희망』이 보여주는 미래 문명세계는 다소 모호한 빛깔을 띠고 있다.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찬양적 발언이 거듭 강조되긴 하지만 미래 사회가 어떤 정치체제를 갖춘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는 선명한 투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이들 작품에서 미래의 문명세계는 인간의 자율적인 가치판단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공공의 선과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이득은 포기할 수 있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인간적 품성이 원칙적인 차원에서 강조될 따름인 것이다.

소재와 주제의 참신성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과학환상소설은 북한문학의 지

형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북한의 소설작품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도식적인 한계, 즉 선과 악의 구도로 형상화된 인물형은 과학환상소설 장르에서도 예외없이 드러난다. 남성과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공공의 선을 통해 더욱 굳건히 다져지는 감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역시 상투적인 설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주체의 인간학이라는 강박적 개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벗어나는 새로운 미래적 상상력을 끌어들이야 하는 과학환상소설의 이중적 부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과학환상소설은 다양한 문학적 주제와 형식을 수용하면서 일상 속에서 좀더 현실적인 인물들을 그려내려는 북한문학의 고민과 시도를 보여주는 미완의 장르로서 존재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이농 문제를 다룬 소설의 특성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이농소설은 도시에 살고 있었거나, 기술직·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토지에 뿌리를 둔 자가 땅과의 투쟁을 통해서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내용의 전통적인 농촌소설의 문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꼭 이농소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90년대 농촌소설에서 토착농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중심인물의 성격도 변화하여 인텔리 계층의 농촌체험이 자주 등장한다. 전형적 인물이 반동인물과 갈등을 겪고 그 과정에서 승리하는 구조보다는 아직 진정한 혁명가로 거듭나지 못한 중심인물이 영웅적인 주변인물에 의해 교화 혹은 감화되는 내용의 서사가 압도적이다. 이전의 농촌소설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전후 복구기 및 사회주의 건설기의 ‘숨은 영웅’ 찾기 전통을 잇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인물형과 이타주의적인 인물형을 대립시켜 ‘우리식’을 부각시키는 경향이다.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나’를 망각한 ‘우리’가 하나의 사회주의적 전체를 구성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

김창림의 『옆집 사람』(『청년문학』, 2002. 10)은 ‘기계화반’의 인정받는 선반공이었던 진석이 자신보다 뒤늦게 농장으로 이주한 ‘옆집사람(강호식 아바이)’과 겪는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분배의 기준이 되는 두 집 사이의 울타리를 허락

없이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강아바이를 좋지 못한 눈초리로 보게 된 진석은 강아바이의 성실한 생활과 뜻뜻한 인정에 끌려 점차 처음의 선입관을 버리게 되지만 작업하고 있는 동료일꾼들을 버려 두고 ‘위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강아바이에게 꾸중을 듣자 강아바이의 출신성분을 트집잡아 신랄한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강아바이가 자신이 농촌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모두 농촌을 외면하게 된 현실을 통탄하고 농촌에 자원하여 내려온 훌륭한 사람임을 알게 되자 곧 오해를 풀고 애초의 울타리를 손수 제거하고 “한평생 낫을 역세계 틀어 잡고 쌀로서 장군님을 받들” 의지를 다진다.

리승섭의 「삶의 위치」(『청년문학』, 2002. 12)는 공간적 배경은 다르지만 인물 갈등의 구도 및 ‘우리의식’의 강조가 「옆집사람」과 유사하다. 발전소 건설현장의 취사원으로 돌격대 생활을 시작한 조학실은 자신이 배치받은 장소에 실망하여 어떻게든 현장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남자인데도 현장경비나 서고 있는 오광삼이나 취사원 생활에 만족하는 친구 허정금은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 언제가 홍수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정금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언제를 지키고, 학실은 그를 통해 ‘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삶의 의미와 ‘영웅의 딸’이 되는 진정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강혜옥의 「고향에 온 처녀」(『청년문학』, 2002. 10)는 불도젤 운전수 범국의 시선으로 교대 운전수로 나선 나 어린 처녀 김채향의 영웅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범국은 차칸에서 음악이나 듣는 연약한 처녀 채향이 남자들도 힘들다는 불도젤을 운전할 수 있으리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채향의 굳은 의지와 사나이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채향이 아픈 몸으로 밤새 벌을 뒤져 동천 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낸 일을 계기로 고향땅과 장군님을 모시는 새로운 감격을 뜨겁게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기본구도는 앞의 것들과 같지만 상부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한 인물의 ‘창조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과 80년대 이후로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로맨스 모티프’가 양념처럼 섞여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시처녀들의 농촌체험을 미화한 지인철의 「막내딸」(『청년문학』, 2002. 11)과는 반대로 도시의 삶을 동경하는 농촌총각의 성장을 다룬 변영건의 「씨앗의

소원」(『청년문학』, 2002. 8)도 있다. 미술대학시험에 떨어져 농장원으로 주저앉게 된 ‘나’는 화가에 대한 이상과 농부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꿈 많은 청년이다. 제대군인 출신의 분조장은 그러한 ‘나’를 좋게 보지 않는다. 결국 ‘나’는 자신의 부르조아적인 근성을 깊이 반성하고 한알의 씨앗을 살리는 전투에 적극 참여하여, 분조장의 눈물어린 지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접촉을 통해 인간적 성장과 예술적 성장을 겸비한 예술가로 입문하게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땅’과 ‘씨앗’의 메타포가 동시에 등장하여 후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북한농촌소설의 일반적인 경향이기도 한 것으로, 북한문예학의 주된 관심이 식량문제를 해결해줄 ‘씨앗’의 지킴과 함께 북한농촌문제의 ‘내부적 요인’을 극복할 ‘인간중자’ 육성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단 2000년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의 북한소설을 거꾸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생긴다. ‘우리’와 ‘인텔리 의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북한농촌이 개인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학벌 및 지역의식의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여성’과 ‘사랑’이 주요한 테마로 떠오르는 것은 ‘남녀평등’과 ‘자유연애’의 보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 문제’가 하위갈등이나 화해의 모티브로 제시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인민대중을 교화하기 위한 무의식적 기제나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IV.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시의 전개 양상

1. 『주체문학론』 간행 이후 북한시의 전반적 검토

1992년 김정일에 의해 간행된 『주체문학론』은 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북한 시창작방법의 ‘길라잡이’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의 시인들은 『주체문학론』을 기반으로, ‘주호의 동요 없이 혁명적 원칙성과 사상적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 나가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공식적인’ 문예 월간지인 『조선문학』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대개가 『주체문학론』에서 제기된 세부 조항들, 예를 들면 ‘문학은 마땅히 이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의 자주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혹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주체문학론』에서 제시하는 ‘주체 사상’에 입각한 대중 선전선동의 작품 유형은 따지고 보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시는 시기별, 현안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 당과 인민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 또는 반제 반미의 사상적 ‘무기’로서 우선적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바탕으로 90년대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문학의 오랜 ‘전통’인 체제 종속적 문학 담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체문학론』이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주요 정책들은 체제 종속적인 북한 문예의 성격상 이 시기의 창작 방법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이 시기의 북한시들은 『주체문학론』을 기반으로 붉은기 사상, 고난의 행군, 강성대국과 선군 정치 등,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시대 정치사적 테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는 ‘선군정치’가 북한의 핵심정치이념으로 제기되는 까닭에 선군정치의 시대정신을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속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문학의 오랜 주제인 반제 반미사상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 시기 들어 한층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체문학론』 간행 이후 북한시의 성격과 동향을 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 장에서는 선군혁명문학과 반제반미 사상의 문학적 구현 양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선군정치시대의 시(詩)

선군 정치는 단적으로 말해서 군대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선대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자는 북한식 통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북한은 1998년 5월 선군 정치를 공식적으로 표명²⁰⁾하는데 2004년 현재까지도 이에 입각한 통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선군 정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와 체제 모순의 한계를 ‘혁명적인 군인 정신’으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8년 이후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기는 하나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에 따라 체제 붕괴의 국가적 위기를 사상 강화로 돌파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민군대를 전위로 삼아 혁명적 동지 의식을 강조한 선군 정치로 제시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선군 정치는 만능의 정치 방식’²¹⁾으로 인식된다.

고립과 압살 봉쇄의 쇠사슬을
우리 과연 무엇으로 끊었더냐
그처럼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무엇으로 이겨 냈더냐
그러면 말해 주리 선군혁명의 총대가
장군님 들어 쥐신 백두산 총대가

그 총대에 받들려
내 조국은 강성대국으로 일떠서나니
제국주의 무리가 악을 쓰며 발악해도
총대로 승리하는 김정일 조선으로
새 세기에 더욱 빛을 뿌리나니

아, 장군님 높이 모셔
세상에 존엄 높은 백두산 총대여
김일성민족의 뉘으로 추켜 든
무적필승의 총대가 우리에게 있어
혁명의 최후승리는 밝아 오리라!

리동수, 『백두산 총대』 부분

북한의 문예정책이 당의 정책에 복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군 정치가 공

20) 북한에서 군대의 위상을 강조한 글은 1997년 「혁명적 군인 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 김정일의 이 글은 혁명적 군인 정신을 북한의 당원과 인민들이 따라 배워야 할 투쟁 정신이며 ‘오늘의 난관을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기 위한 사상 정신적 양식’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 김정일의 핵심 정책이념으로 제시된 선군 정치의 공식화는 98년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1) 『로동신문』, 2003. 1. 3, 사설 6쪽.

표된 이후 적지 않은 북한 문학 작품들이 선군 정치 이념을 표방하고 있음을 추측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이념과 미학적 실천을 동일시하는 북한 문학의 특성상 현 체제 북한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은 선군 정치를 형상화하는 문학 작품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선군 정치, 선군 혁명 사상을 “문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선군 혁명 문학이다.”²²⁾ 선군 혁명 문학은 ‘총대’를 중시하는 선군 정치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선군영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할 때”, 또한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혁명동지로 될 때” “빛나는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²³⁾ 인용시는 이러한 선군 혁명 문학, 즉 ‘총대’ 문학의 모범적 사례에 해당한다.

인용시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총대’라는 시어의 빈번한 사용이다. 이 시에서 총대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단어이자 동시에 각각의 연을 연결하는 매개어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위의 시는 총대의 시어를 중심으로 재구될 수 있는데 이를 내용 순으로 살펴보면, 1)제국주의자들의 ‘고립과 압살 봉쇄의 죄사슬을’ 끊은 것은 ‘선군 혁명의 총대’이고, 2)‘장군님 틀어쥐신 백두산 총대’이며, 3)‘세상에서 존엄 높은 백두산 총대’이다. 그리고 4)‘그 총대에 받들려’ ‘혁명의 최후 승리는 밝아’온다로 정리된다. 여기서 총대는 북한 혁명 역사상 최악의 시련기로 꼽히는 90년대 중 후반의 ‘고난의 행군’ 기간을 비롯하여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무적 필승’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 시에서 그것은 북한 인민대중들에게 혁명의 ‘찬연한’ 승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시적 화자는 ‘총대’의 중요성을 전 10연으로 구성된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북한의 인민대중들에게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 정신으로 지켜 나가자고 격앙된 어조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가 그토록 신뢰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총대란 무엇인가. 아울러 혁명의 최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총대 정신이란 무엇인가.

위의 시에서 ‘총대’란 작품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군복’, ‘총’, ‘권총’ 등의 시

22) 노귀남, 「선군 혁명의 문학적 형상」, 『문학과 창작』, 2001. 7.

23) 「조국해방전쟁승리 50돐을 맞는 올해를 선군혁명문학의 성과로 빛내이자」, 『조선문학』, 2003. 1, 6쪽.

어들이 환기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군대를 지칭한다. 즉 총대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령도’에 따르는 인민 군대를 말하며, 총대 정신이란 군대를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적 동지의식을 발휘해 현 북한의 체제를 결사옹위하자는 굳은 결의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는 총대를 ‘충동원’하여 현재 북한에서 군대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고 북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혁명적 군인 정신을 계승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시는 전형적인 ‘총대문학’, 혹은 ‘선군혁명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를 우대하고 총대를 위주로 혁명의 과업을 완수해 나가려는 시적 주제 의식은 선군 혁명문학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군혁명문학은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시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이상화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선군혁명문학은 이제까지 북한 문학의 왜곡된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수령 형상 문학’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까지 발표된 작품들의 면면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가령, 「군복 입은 사랑이 나에게 있어」, 「초소여 나를 맞아다오」, 「총이여 너와 나」, 「병사의 인사」 등은 그 좋은 예에 해당한다. 이들 작품은 제목에서 암시되듯 ‘총대 문학’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당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쌓이고 쌓인 그리움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땅
 한없이 열렬한 그 뜨거움이
 병사의 총창우에 담겨져 있어
 더 밝아지고
 더 억세여 지고
 더 무거워 진 나의 조국

기쁘게 받으십시오
 총대로 안아 올린 아름다운 이 강산
 총대로 가꾼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가 집을 떠나 먼길을 갈 때
 딸자식에게 집을 맡기듯이

병사의 어깨우에 맡긴 민의 집
 백두산 총대우에 맡긴 사회주의 집
 이 집을 지킨 자랑으로 하여
 병사는 긍지로 가슴 부푼게 아십니까

박해출, 「병사의 인사」 부분

위의 시는 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일을 맞는 한 병사의 감회를 적어 놓은 작품이다. 총 8연으로 구성된 이 시에서 특히 주목을 요구하는 대목은 위의 인용 부분이다. 병사의 ‘쌓이고 쌓인 그리움’을 뒤로하고 김정일은 작년 연말 말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다. 인용시는 이런 김정일의 정치 일정을 ‘아버지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가 김정일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김일성 민족’을 자처하고 있음을 염두 해둘 때, ‘수령형상’이라는 북한 문학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그다지 특이할만한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시에서 시적 화자로 등장하는 ‘병사’의 가계적 신분이 ‘말자식’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최근 북한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선군 정치 시대의 김정일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대상이 군대임을 이 시는 새삼스럽게 확인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말자식에게 집을 맡기듯이/병사의 어깨 우에 맡긴 인민의 집/백두산 총대 우에 맡긴 사회주의 집”. 이 집은 다름 아닌 ‘선군 혁명 문학’이라는 명패를 단 21세기 북한 문학의 현 주소이다.

3. 반제반미사상의 시적 구현 양상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간행 이후 90년대 북한 문학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제’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환기된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 전쟁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북한은 미국을 남북한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미제 타도’를 주장해왔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제국주의야말로 분단을 야기한 실질적 장본인이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반미 사상을 고

취시켜왔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미제타도’는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민 대중들 사이에 이처럼 ‘미제’에 대한 ‘전통적’ 경계심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북한 문학이 반제 반미사상을 새삼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북한 당국의 전통적 적대감 외에도 이라크 전쟁 이후의 국제적 분위기 및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강경대응 방침 등 최근의 상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보유국으로 지목되어 비난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국가적 위기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 모든 사태를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책동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자주국방의 대외적 선전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반미사상을 재차 강화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북한이 조심스럽게 핵 보유설을 흘리고 있었던 것도, 최근 미국을 ‘겨냥’한 혁명 구호들이 한층 강도를 높여 가는 것도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90년대 이후 북한의 급박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북한 문학에 강도 높게 투사된 반제·반미의 주체의식은 다음의 시편들을 통해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오, 허나 무등산기슭에/연분홍 진달래를 피우기에는/여기에 습배인 피너무도 길고/유보도가에 청춘들을 부르기엔/너무도 차거운 살풍이/이 땅우에 휘몰아 치거니// 보라 오늘도/나어린 두 소녀를/장갑차로 깔아 죽인/아메리카 식인종들이/뼈젓이 활개치며/광주의 더운 피 식지 않은/이 땅을 우롱하고 있다

- 리광선, 「5월이 부르는 노래」 부분

② 초불이 탄다/방울 방울 가슴 찢는 피눈물인듯/방울 방울 초불이 녹아 곡성을 터친다/신효순 심미선 꽃나이 열네살/그 혼을 불러 몸부림친다// 바다가 기슭이 있다면/초불의 바다는 그것을 모른다/어찌 더 참고 견디랴/어찌 더 이상 죽음으로 모욕을 참고 넘어서랴// 내 조국의 남녘아/네가 말해다오/살인자가 무죄로 되는 세상이/우리가 땀줄 묻은 이 땅이란 말이나// 미국은 하늘도 아니다/미국은 하늘도 아니다/두 눈도 감겨 주지 못한 열네살 꽃망울들/그 순진한 가슴을/장갑차의 무한궤도로 짓밟겐/미국은 이 세상

악마이다// 악마는 죽어야 한다/원통하게 가버린 민족의 혼을 부르는/저 초
 불의 바다가 하늘이다/이 준엄한 심판의 하늘 앞에서/미국놈들아/십자가에
 못 박히라/아, 저 초불의 바다가 력사의 십자가다!

- 홍현양, 「초불의 바다」 부분

9연 50행의 장시 형태로 구성된 위의 ①시는 80년 5월 남한에서 발생한 광주 항쟁을 중심소재로 다루고 있다. 80년대 이후 북한시에는 남한의 반정권 투쟁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작품들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조선문학』을 비롯한 북한 문예지의 매년 5월호에는 ‘5월 광주’의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 한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추측하건대, 남한의 정권과 관련된 비극적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좋은 단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2003년 『조선문학』5월호에 게재된 이 시도 「5월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광주항쟁을 소재로 하는 북한 ‘5월 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월이 부르는 노래」는 기존 북한시의 유형과 약간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제까지 광주항쟁을 매개로 한 북한시가 전반적으로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었다면, 이 시의 경우 반제·반미 사상의 주제의식을 중점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의 5연에서 ‘미군 장갑차 사건’과 연계하여 미국을 ‘아메리카 식인종’이라는 원색적인 비유로 묘사하는 대목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이는 종전 북한 ‘5월 시’의 경향과 변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다.

불과 이년 전 남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사건’은 ②의 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인용한 시 「초불의 바다」는 이 사건의 여중생(신효순, 심미선) 희생자를 추모한 남한의 ‘촛불 시위’를 소재로 해서 쓴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천만개’의 ‘초불’을 천만개의 ‘분노한 심장’과 ‘민족의 혼을 부르는 불’로 형상화한다.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남한의 촛불 행진에 시인은 정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 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시의 주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반미 사상의 고양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남한에서 진행된 ‘촛불 행진’에 민족적,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사건이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 시에서 미국을 ‘살인자’, ‘악마’, ‘미국놈’ 등의 과격하고 극단적인 시어로 표

출한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문학론』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시의 ‘시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V. 결론

체제의 통합은 다양한 이질성을 극복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지만 이질성의 극복은 가만히 앉아서 정치적 해결을 기다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연대감과 문화적 동일성의 회복은 쌍방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속에서 가능할 수 있다. 즉 남북 문화의 지속적인 교류와 다양한 접촉만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 문화적 침범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문학 연구는 그만큼 중요하다.

본고는 『주체문학론』과 그 이후의 북한 문예물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작품 분석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이 내포하고 있는 북한문학에서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단편소설의 주제론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조선문학』과 『청년문학』 등에 나타난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조국통일문제, 청춘 남녀의 사랑, 과학환상, 이농문제 등을 소항목화하여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4장에서는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주제론적 특성을 고찰하면서, 선군정치시대의 시, 반제반미사상의 시적 구현 양상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작품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는 『주체문학론』에 나타난 담론 속에서 미세한 균열의 징후를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선군정치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문학의 양상에 대하여 미시적 작품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10여 년에 이르는 북한 체제의 내외적 변화(김일성 사망 전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만큼이나 다양하게 전개되었을 북한문학의 변화 양상을 몇몇 단편소설과 단편적인 시를 통해 일반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고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시기적으로 더욱 세목화하여 접근하는 보완 작업이 지

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 주체문학론, 북한문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체제,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선군시대, 한국문학, 남북한문학

참고문헌

- 강만길·김경원·홍윤기·백낙청, 「좌담, 통일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창작과 비평』, 2000. 가을.
- 고인환, 「『주체문학론』의 서술 체계와 특징」,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_____, 「『주체문학론』에 나타난 소설 창작방법론 비판」,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김병진, 「1990년대 이후 ‘조국통일주체’ 소설의 변모 양상」,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김성수, 『통일의 문학, 비평의 논리』, 책세상, 2001.
-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4.
- _____,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소명출판, 2000.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1967. 5. 30)
- _____,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1967. 7. 3)
- _____, <문학예술작품에 당의 유일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할 데 대하여>(1967. 8. 16)
- _____,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89. 12. 28)
- 김중희, 「해방 후 북한문학의 전개와 실증적 연구 방향」,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_____, 「오늘의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_____, 「통일문화의 실천적 개념과 남북한 문화이질화의 극복 방안」,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노귀남, 「선군 혁명의 문학적 형상」, 『문학과 창작』, 2001. 7.
- _____, 「체제 위기와 동행자문학」,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노희준, 「'종자'와 '씨앗'의 변증법」,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박대상, 『북한문학의 동향』, 깊은샘, 2002.
- , 『북한문학의 현상』, 깊은샘, 1999.
- 백지연, 「과학환상소설과 미래적 상상력」,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성기조, 『주체사상을 위한 혁명적 무기의 역할』, 신원문화사, 1989.
- 오태호, 「북한식 사랑법을 찾아서」,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이봉일, 「2000년대 북한문학의 전개 양상」,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이성천,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시의 행방」,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문학의 이해」, 『북한문학의 이해3』, 청동거울, 2004.
- 황정상, 『과학환상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월간지 『조선문학』(1992년 이후)
- 월간지 『청년문학』(1992년 이후)

<Abstract>

The Direc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Since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Kim, Jong-Hoi

This article is trying to recover the linguistic and cultural ident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a study of North Korean literature. Specially this article focused on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and analyzed actual literary works in North Korean literature since Jucheism was announced.

In chapter 2, this article analyzed the meaning of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which Kim Jung-il made. In chapter 3, this article also analyzed North Korean short stories since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until now. This analysis in chapter 3 specially focused on 1990's North Korean short stories appearing 『Chosun Munhak』 and 『Chungnyon Munhak』. In chapter 4, this article analyzed North Korean poetry since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until now.

In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is trying to reveal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rough critical analysis about actual works both novels and poems since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was made. Now we have to focus on actual literary works instead of ideological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the North Korean literature.

Key Words : *Literature Theory Under the Jucheism*, North Korean literature, Kim Il-sung, Kim Jung-il, Kim Jung-il's system, Death of Kim Il-sung, March of Sufferings, Korean literature, South and North Korean literature